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5. AUG

전문가 기고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이슈는
기업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ESG 주요 현안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와
GHG 프로토콜의 이해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자연자본과 생물 다양성 이슈는 기업 지속가능성 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강

EY한영 팀장

“과거의 환경 경영이
‘피해야 할 규제 목록’
이었다면,
이제는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 영역’으로
진화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미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자연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험 중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2위로 꼽았다. 이는 2년 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전 세계 경제와 사회가 이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치로 살펴보면 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 멸종 위기 종의 약 80%가 경제 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100만 종이 넘는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 육지 표면의 약 40%는 황폐화됐고, 인류는 지구의 생태 재생 능력보다 1.8배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옥스퍼드대 분석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훼손이 초래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최대 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글로벌 GDP의 약 55%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수자원,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 수분 매개자 등)에 직접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적 훼손은 결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정책과 시장의 빨라지는 움직임

다행히도 자연과 생물다양성 손실 이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회복하기 위한 23개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목표 15’는 정부가 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연 관련 위험·영향·의존성을 평가하고 공개할 것을 장려하도록 하며, ‘목표 18’은 환경 유해 보조금(EHS) 개혁과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목표 19’는 민간 금융을 통한 보존 투자 촉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목표는 이미 법제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등은 기업이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경영 전략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21년 개정된 환경법(Environment Act 2021)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순이익(Biodiversity Net Gain)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 사업자가 손실되는 생물다양성 가치를 최소 10% 이상 초과하여 복원하도록 의무화(2024년 2월 대규모 개발, 4월부터 소규모 개발 사업까지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순증’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와 자연 관련 과학기반 목표 네트워크(SBTN)가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 이슈 대응과 정보 공시를 위한 글로벌 표준 프레임워크로 자리잡고 있으며, 금융·비금융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확산 중이다.

1) <https://www.weforum.org/stories/2023/02/biodiversity-nature-loss-cop15/>

2) <https://initiatives.weforum.org/nature-positive-transitions/home>

3) https://overshoot.footprintnetwork.org/newsroom/press-release-2025-english/?utm_source=chatgpt.com

4) \$5 trillion in nature-related global economic risks will amplify climate change - Oxford study | University of Oxford

5) <https://www.danesmeadadvisory.com/news/nature-and-biodiversity-the-new-frontier>

자연자본과 생물 다양성 이슈는 기업 지속가능성 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을 수립해 GBF 목표를 반영한 국가 차원의 보전·복원·이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의 공통 인식 아래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24년 3월 결성(23개 기업 포함 31개 기관 참여)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팅그룹)'을 출범시켜 기업들의 글로벌 공시 대응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과 투자자의 움직임도 이러한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 2024년 10월 COP16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54개 관할권과 62개 산업 분야에 걸쳐 500개 이상의 조직이 자연 관련 공시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여기에는 총 17.7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과, 시가총액 6.5조 달러에 달하는 상장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연합인 'Nature Action 100'은 자산 23.6조 달러를 운용하며, 기업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사회 차원의 감독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생물다양성 리스크와 기회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움직일 때: 리스크 관리에서 성장 동력으로

모든 산업은 토지, 해양, 담수, 대기 등의 자연과 이로부터의 생태계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한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활동은 토지 전환, 오염물질 배출, 자원 남획 등으로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자연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과 영향(Impact)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경영 과제이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 손실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공급망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수질 악화, 질병 증가, 노동력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일부 국가에서는 자연과 관련된 규제와 소송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은 '자연파괴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의존하고 있던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 서비스가 무너지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기업들은 '자신들이 자연과 분리되어 있으며, 자연을 계속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착취할 수 있다'고 믿는 지배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Nature-positive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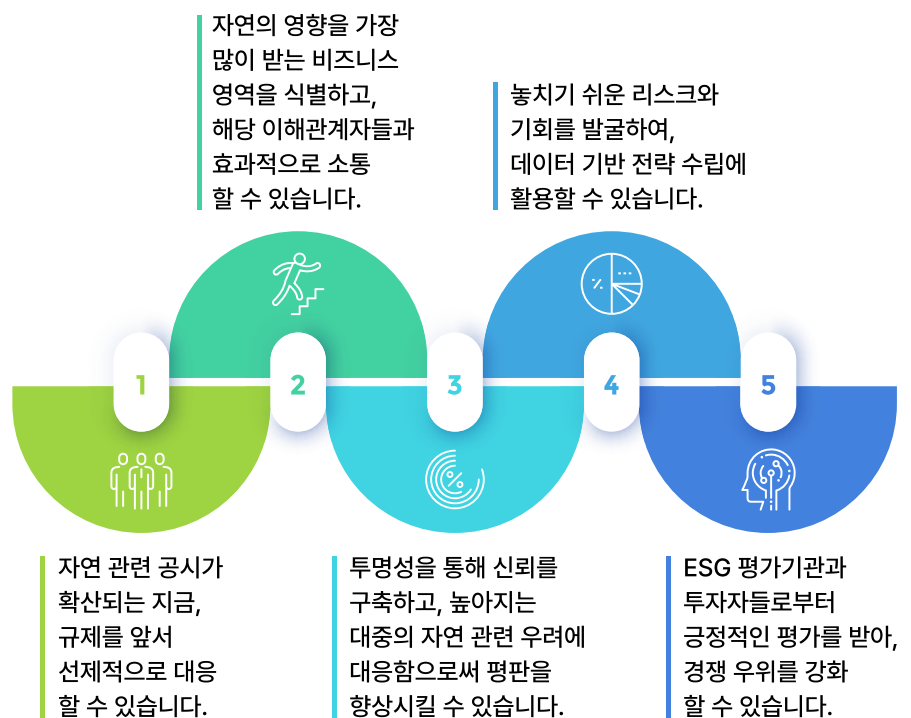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제약사 GSK는 의료 치료제의 약 1/3이 천연물 기반임을 인식하고,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산림·해양 자재 100% 지속가능 조달, 물 사용량 20% 감축,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물 중립 달성, 활성의약성분(API) 환경 영향 '제로'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과 브랜드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다. 대만의 선도 건설기업 CTCI는 TNFD 권고 프레임워크인 LEAP 접근법을 활용하여 자산과 공급망 1,000개 이상을 분석하고,

자연자본과 생물 다양성 이슈는 기업 지속가능성 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km 반경 내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감지역에서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자연 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을 프로젝트 설계에 반영하며, 직원 교육과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은 체계적인 자연·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이행을 통해 원자재 수급 불안 완화, 가격 변동성 감소, 규제 선제 대응, ESG 평가 개선, 투자자 신뢰 확보 등 다양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과거의 환경 경영이 ‘피해야 할 규제 목록’이었다면, 이제는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 영역’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지금이 바로, 자연과 공존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며, 기업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그림 1] 자연과 생물다양성으로부터의 기회 창출



6) 기업과 관련된 생태학적 민감지역을 식별하고(Locate),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을 측정하며(Evaluate), 리스크 및 기회 평가(Assess)와 이에 대한 대응 및 공시를 준비(Prepare)하기 위한 TNFD 권고안에서의 접근법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와 GHG 프로토콜의 이해

“ Scope 3 산정은 GHG 경영의 핵심이지만 실무적 복잡성과 데이터 확보의 한계, 협력사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매우 도전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



GHG 프로토콜

1990년대 후반, 기업의 온실가스(GHG) 배출이 점차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제기되었으나 기업 차원의 표준화된 온실가스 산정 및 공시 기준은 부재했다. 이에 1998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BCSD)는 BP, GM 등 대기업과 NGO,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이용할 산정 기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GHG 프로토콜은 2001년 '기업회계 및 보고표준'의 첫 버전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후 scope 3, 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온실가스 산정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GHG 프로토콜은 정부, 기업, 투자기관 모두가 인정하는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의 국제적 최상위 표준이 되었다.

GHG 프로토콜의 scope 3

scope 3 온실가스 산정에는 공급망 전반, 유통, 소비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마저 직접 측정치가 아주 부족하므로 추정치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의 중복집계, 누락 등에 의한 투명성 부족과 협력사별 측정 시기, 방법의 차이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수집, 관리, 검증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GHG 프로토콜은 scope 1, 2는 물론이고, 복잡하고 부정확한 scope 3 온실가스 산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GHG protocol이 제공하는 scope 3의 15개 카테고리

생산준비과정

Scope 3

UPSTREAM

- 원자재,
- 설비 생산
- 연료/에너지 채굴, 정제, 운송,
- 원자재 및 부품 운송
- 조직의 폐기물 처리
- 직원 출퇴근
- 사업장장
- 조직의 임차자산

조직경계 생산과정

Scope 1

- 고정연소
- 이동연소

Scope 2

- 전기 E

판매, 소비, 폐기과정

Scop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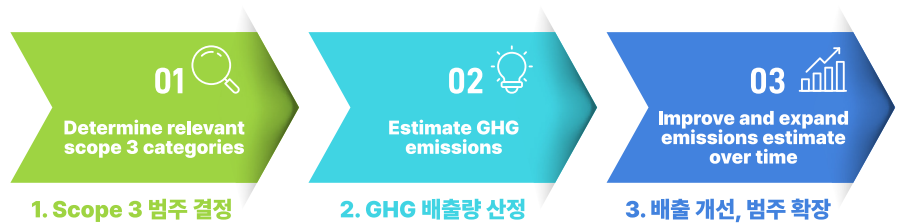
DOWNSTREAM

- 생산 제품 운송, 유통
- 제품 가공(중간재)
- 제품 사용(완제품)
- 제품 폐기
- 임대자산
- 프랜차이즈
- 투자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와 GHG 프로토콜의 이해

GHG 프로토콜에서는 업스트림 8개, 다운스트림 7개의 카테고리로 scope 3를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에 실제 활동 데이터를 우선으로 하고 활동 데이터가 부족하면 합리적이고 적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scope 3 온실가스 산정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scope 3는 조직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가치사슬상에서 발생하는 scope 2를 제외한 모든 간접배출(15개 카테고리)의 운영경계를 의미하며 복수 산정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GHG 프로토콜에서 안내하는 복수 산정방법은 구매 금액 기준, 평균 단위 배출계수, 공급사별 측정치, Hybrid 방법 등이 있다. 이들 scope 3 산정방법은 모두 합목적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등을 필수 핵심원칙으로 기반하고 있으므로 GHG 프로토콜을 IFRS, CSRD 등에서도 수용 및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cope 3 배출량 공시

1) 한국—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2024년)에서는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포함시켰으나, 실제 의무화 시기와 구체적 범위는 확정하지 않고 보류 중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GHG 프로토콜 같은 국제기준을 참고해 scope 3 산정을 권고하되, 기업의 부담과 데이터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시시기는 2026년 이후가 유력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실제 실행은 공시제도 도입 후 3년 정도를 유예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즉, 공시에는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하되 강제성은 제도가 정착된 뒤에 적용하며, 초기에는 정보 수집 및 관리 역량확보와 내부정착의 유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구체적인 '공급망 내 scope 3 안내서'와 같은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scope 3 공개를 일부 시작한 상태이며 2024년 기준으로 국내 256개 주요 상장기업 중 15개 GHG 카테고리 전체를 전면 공시하는 곳은 1% 이하로 극소수이고, 상당수 기업이 임직원 출장 등 일부 항목만 부분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제표준을 적극 수용하되 국내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도입과 기업 부담 최소화, 실질적 기후경영 역량 제고라는 방향으로 scope 3 공시를 준비 및 운영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와 GHG 프로토콜의 이해

2) 유럽__유럽집행위원회 기후행동총국의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맞춰 상장기업 및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scope 3 배출량의 산정 및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에 맞춰 2025년부터 본격적인 보고가 시작된다.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2024년 7월 25일에 발효한 공급망 실사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과 자회사, 1차에서 N차 협력사까지 공급망 전반의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SDDD에 특히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사 및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주요 특징이다. 다만 scope 3의 15개 카테고리 중에 최종 소비자 사용 및 제품 폐기단계만은 제외한다.

3) 미국__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최종 기후정보공개 규정에서 scope 3 배출량 공개 조항을 삭제했다. scope 1, 2 배출량만을 의무화하고, scope 3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성(materiality)이 인정될 때나 별도 감축목표가 존재할 때에만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4년에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scope 3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CSB 261)을 도입하였으며,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4) 중국__2024년 기준으로 3대 증권거래소(상하이, 선전, 베이징)에서 상장사 대상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scope 3 공개를 권고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주요 상장사 중에서 scope 3를 공개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scope 1, 2만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인도__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상위 1,0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scope 1, 2 배출량은 핵심성과지표(KPI)로 명시, 관리하며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scope 3는 리더십 지표로써 2024년도에도 자발적 공개만 권고하고, 의무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6) 일본__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7~2028 회계연도부터 scope 3 배출량 산정 및 공시 의무화를 준비 중이다. GHG 프로토콜을 위시한 국제기준에 준거하여, scope 1, 2, 3의 상세 산정과 검증, 실제 적용 대상과 방법, 적용 범위는 SSBJ의 세부기준에 따라 조정될 계획이다.

결론

Scope 3 산정은 전체 밸류체인을의 기후영향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GHG 경영의 핵심이지만 실무적 복잡성과 데이터 확보의 한계, 협력사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매우 도전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GHG 프로토콜은 이 같은 scope 3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정치 활용, 단계적 개선, 합리적 관리의 입증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GHG 산정, 관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E

환경

**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조성' 국정과제 선정 환영**

연합뉴스 | 2025년 8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3139600054>**금총리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RE100 전용 산단 신속 조성"**

연합뉴스 | 2025년 8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2063500001>**월간 RE100 동향 보고서 "2025년 8월호"**

한국RE100협의회 | 2025년 8월 13일

https://www.k-re100.or.kr/bbs/board.php?bo_table=sub5_1&wr_id=135**현대백화점그룹, ESG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나선다**

TENANT news | 2025년 8월 26일

<https://tnnews.co.kr/archives/246536>**탄소중립 금융 시장의 확대, ESG 경영의 촉매제 역할**

데일리연합 | 2025년 8월 27일

<https://dailyan.com/news/article.html?no=732644>**백서 발간 "Impacts of the RE100 Initiative on Major Korean Export Industries"**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2025년 8월

https://www.ksnre.or.kr/content/post/post_view.php?bt=8&post_id=5696&page=1**정부 '배출권 거래 활성화' 확정 자산운용사·개인까지 참여 허용**

서울파이낸스 | 2025년 8월 20일

<http://www.seoulfnhub.kr/bbs/board.php?tbl=bbs47&mode=VIEW&num=37054&category=kr>

S

사회

**캠코,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사회(S) 분야 '대상' 수상**

부산닷컴 | 2025년 8월 26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82615053483528>**소셜혁신연구소, 2025년 ESG지원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1차 성료**

사회적경제뉴스 | 2025년 8월 16일

<http://m.senews.kr/a.html?uid=29668>**노사관계 안정 없는 ESG경영은 허상, 노동인권과 노사협치가 진정한 혁신**

전국여성노동조합 | 2025년 8월 25일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20113**리프트, 창업자 이사회 사임·의결권 단일화 지배구조 개편**

조이스스탁US | 2025년 8월 15일

https://www.choicestock.co.kr/stock/news_view/62917?bu=/search/news/LYFT**2025년 ESG 평가대상기업 안내**

한국ESG기준원 | 2025년 8월 11일

https://www.cgs.or.kr/news/press_view.jsp?no=226**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독립성 강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2025년 8월 13일

<https://www.deloitte.com/kr/ko/about/press-room/press-2025-08-13.html>**금융지주 ESG 진단 '내부통제' 178번 언급...우리금융, 신뢰 회복 '절치부심'**

딜사이트 | 2025년 8월 27일

<https://dealsite.co.kr/articles/147034>**NIA, '한국ESG혁신정책 대상' 지배구조 분야 대상 수상**

디지털데일리 | 2025년 8월 27일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82710210110710>

G

지배구조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303	301	296	290	301	295	301	308
사회적채권	1,696	1,701	1,713	1,718	1,725	1,704	1,724	1,741
지속가능채권	254	255	248	243	224	236	225	221

(단위: 천억 원)

구분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274	273	273	263	260	257	258	264
사회적채권	2,165	2,172	2,162	2,130	2,120	2,112	2,111	2,110
지속가능채권	168	166	167	164	164	160	160	158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7.31)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4	20	38	78	131	161	204	212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배구조보고서	101	213	224	231	355	380	530	509

자료: KRX ESG 포털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7.31)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7)* CF100 참여 기업 수:
171개 ('25.7)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	-	-	6	14	27	36	36	36
글로벌	141	204	269	335	393	426	439	444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